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어떻게 변했나

기사입력 2015/10/15 13:10 송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국제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왕식)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박물관 6층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소장 박철희)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한일 50년'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의 전개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모색한다.

'한일 50년의 회고와 성찰'을 주제로 한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의 기조강연에 이어 1부에서는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주제 아래 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는 화해의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국교정상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그 특징을 검토하고,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일 국교정상화와 일본-베트남 국교정상화 과정을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2부에서는 '국제정치구조의 변화와 한일 50년: 냉전기, 탈냉전기, 세력전환기'라는 주제 아래 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는 냉전기에서 탈냉전기의 한일관계가 '안보우선·경제개발형'에서 '국제협조·과거반성형' 외교로 변화했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중국의 부상 등 국제시스템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냉전체제가 종료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한일관계의 협력과 갈등의 원인을 미국의 글로벌·동아시아 전략의 변화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 차이로 설명한다.

3부에서는 '비교생활사적 관점에서의 한일 50년'이라는 주제로 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의 한일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검토하고, 미래에도 교류·협력이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하리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해방 이후 한일관계를 생성, 전개, 전환기, 발전, 정체와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국민의식과 상호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한다.

hisun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15 13:1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